

민주주의가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성장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박나민¹⁾, 임형록²⁾

Impact of Democracy on economic growth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cusing on Sub-Saharan Africa

Namin Park¹⁾, Hyung Rok Yim²⁾

요약

본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자유정도와 정치참여정도가 국가경제성장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된 정치적 상황은 다국
적기업이 아프리카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인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가난과 빈곤에 극복하기 위한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아프리
카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아프리카는 다당제 등 민주적 제도를 정착하며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덤하우스(2017)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수준
은 평균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선출된 아프리카 정치인들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배타적인 권력을 공유하면서 부패와 비민주적인 협정으로 타락하기도 하였다[23]. 본고에서는 민주주
의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의 남부, 중앙, 서부,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사하라사막이남 지역의 20개국에 대
한 패널분석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핵심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FDI, 정치참여도, 자유정도, 민주주의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egree of freedo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in FDI in sub - Saharan Africa. The 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sub-Saharan Africa
has become a driving force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invest abroad in Africa. Yet, sub-Saharan Africa
still needs economic growth to overcome poverty and poverty. Most African countries have become
democratic countries since the 2000s, with most African countries democratic and democratic. Nonetheless,
according to a survey by Freedom House (2017), the level of democracy in Africa is on average poor. The
elected African politicians have formed cartels around specific powers, sharing exclusive power, and
corruption and undemocratic agreements [23].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democracy has a positive

Received (March 27, 2019), Review Result(April 6, 2019)

Accepted(April 11, 2019), Published(April 30, 2019)

¹⁾(The 1st Author) Ph.D. Student, Th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mariririn@hanyang.ac.kr

²⁾(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Th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hryim@hany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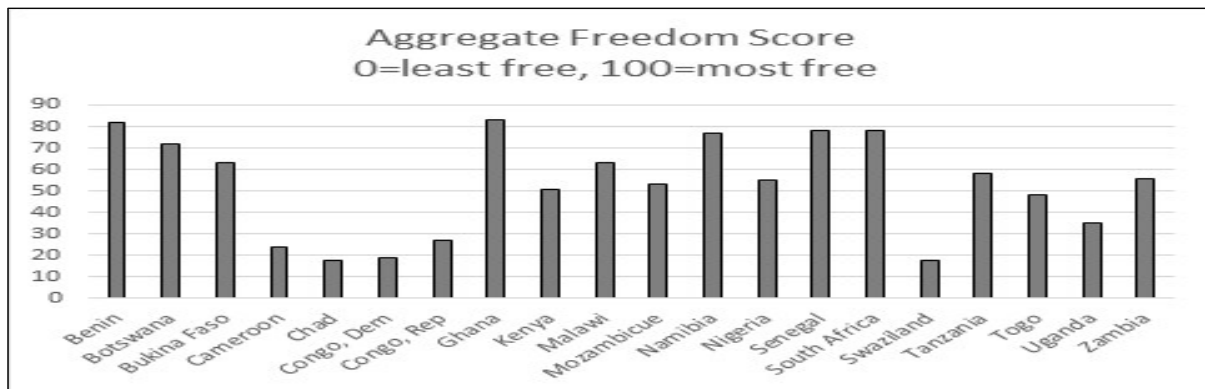
impact on Africa's economic growth.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panel analysis of 20 countries in sub - Saharan Africa covering the southern, central, western and eastern Africa regions from 2002 to 2013.

Keywords: SSA, FDI, Political Engagement, Liberty, Democracy

1. 서론

1.1 Background

프리덤하우스(2017)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프리덤하우스 지표는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소유의 권리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유 또는 권리를 속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지수 (2017)

[Fig. 1] Aggregate Freedom Score of Subsaharan Africa countries (2017)

1960년대 식민통치에서 독립을 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한 권위주의 체제가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제공하지는 못 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전체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2005년 기준, 아프리카의 40개국 이상이 정기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3]. 또한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당제가 확산 되기 시작하여 1989년 아프리카 29개국 이 일당제 국가였는데 반해 1994년에는 대다수가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였다[2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대부분 이와 같이 권력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다당제 정치체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15].

1.2 선거제도의 함정

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권력공유 제도들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해주지 못 했다. 오히려 비민주적인 의미의 권력공유의 수단으로 타락했다. 동등한 집단의 참여를 권장하기보다는 많은 부족과 민족이 배제하는 불안정한 권력공유를 한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제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집단의 참여를 항상 보장하는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협의제적 권력공유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3]. 이는 권력공유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선거제도는 소수 엘리트들이 관직을 공유 배분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정치인들은 잦은 정당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아프리카가 종족적, 지역적 색채를 띠는 문화적으로 분리된 사회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당이 연합을 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단일정당체제라 하더라도 사회균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종족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26]

한편 선출된 아프리카 정치인들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배타적인 권력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합은 권력뿐 아니라 권력에 따른 물질적 이익을 공유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권력공유가 일부 집단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광산의 채굴권 등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협약이 진행되면서, 부패와 비민주적인 협정으로 타락하였다[23].

1.3 Main Issue,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필요성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무역자유화, 민영화, 균형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반 곤경에 빠져 있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 용자지원과 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FDI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에도 아프리카에서는 FDI 유입으로 인한 스펀오버(technology spillover) 및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이전효과는 인적자본의 질이 높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때도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 역시 대규모 장치산업 및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한편 아프리카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 등 정치적 문제와 제도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14]. 한편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인 EIU 캔백(EIU Canback)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아프리카인의 90%가 하루에 10달러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2014년 10-20달러를 버는 중산층은 4.4%에서 6.2%로, 하루에 20-50달러를 버는 중상층은 1.4%에서 2.3%로 늘어났을 뿐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정리하고,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분석할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현지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3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과 통계자료의 특성을 살펴본 이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와 정치참여 정도가 해외직접투자의 GDP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겠다. 마지막 4절에서는 전체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겠다.

2.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2.1 아프리카의 해외직접투자

수 년간의 독재정부와 내전 등으로 2010년까지는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하지만 다당제 안착과 더불어 안정된 정치적 상황은 다국적기업이 아프리카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2010년 이전에는 SSA 지역의 FDI 유입이 자원획득을 겨냥한 자원추구형에 치중되어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사하라이남 지역의 소비시장과 인프라개발을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와 효율추구형 투자로도 전환되고 있다[24]. 아프리카 FDI 유입액은 2000년 100억 USD에서 8년 만에 590억 USD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440억 USD로 감소되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며 2012년에는 다시 500억 USD 수준으로 회복하였다[25]. 인프라개발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투자와 효율추구형 투자로도 전환되고 있다[24]. 이러한 FDI의 유입은 아프리카 신흥 중산층의 증가는 식품, IT, 관광, 금융 등의 기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게 되었다.

2.2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FDI유입이 현지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성장이론에서도 FDI가 경제성장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조심스런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FDI가 선진화된 기술수준을 개도국에 이전해주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FDI는 기술이전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선진국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의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2], [4], [5], [7], [10]. 하지만 그 전파의 정도는 양국의 기술수준차이가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host country)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지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4], [11], [13], [17], [20]. Selma(2013)는 FDI유입이 현지국에 자본, 과학기술, 기업경영자원 등을 제공해주고, 고용창출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외국 기업들이 현지 국민을 고용할 때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현지국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간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4]. FDI유입은 현지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외국기업에 의해 현지시장이 잠식되기도 하며, 이는 현지국기업의 매출감소와

현지국의 고용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현지국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7].

Mao 외(2001)는 Dunning의 해외투자에 대한 절충이론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의 FDI유입에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새로운 장비의 도입, 과학기술 그리고 개방도(수출입)는 FDI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국과의 거리도 운송비등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며, 중국으로의 FDI유입에 환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율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Eicher(2011)는 FDI결정인자를 국가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으로 크게 나누었다. 식민지경험, 종교적 긴장의 결여, 사회경제적 긴장과 부패와 같은 국가적 특성들은 FDI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특성 중 현지국의 시장크기, 시장잠재력, 그리고 경제발전 정도는 FDI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높은 조세, 높은 생산성은 본사국의 해외투자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무역 또는 관세협정이나 교육수준의 차이는 FDI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경제 성장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Sirowy 와 Inkeles(1990), Rao(1984)는 저소득국가 경제에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국가 단위의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저축을 증가해 투자를 유발하여 계획적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정부는 자율적이지만 민주적인이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회 전체의 복지가 아닌 사회 소수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책을 법제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는 반대로, 사유재산권이 비민주적인 체제에서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다 더 잘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권이 덜 안전할 것이라고 한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자본으로의 투자를 유인할 뿐 아니라 혁신에 대한 동기(motivation)로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North 와 Weingast(1989)는 통치자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 제도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낮아짐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한다. 한편 Elster(1995)와 Olson(1991)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에 대한 제약이 적어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ourgerami(1988)는 106개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Barro(1989)는 72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장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Grier 와 Tullock(1989)는 민주주의가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에서는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민주주의와 경

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실증분석 결과도 있었다. Adelman 과 Morris(1967)는 공산권을 포함한 74 개국을 표본을 한 연구를 통해, 권위주의가 저개발국가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arsh(1988)는 민주주의 체제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라고 했다. Landman(1999)도 중남미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4. 분석모형 및 통계자료

4.1 분석모형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FDI와 국내시장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고는 지난 12년간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직접투자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투자대상국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도별 통계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관측치수의 손실로 49개의 사하라이남 국가 중 20개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프리카투자개발은행 ADBG(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의 기준에 의한 분류에 따라 동부지역의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와 서부지역의 탄자니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그리고 중부지역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의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잠비아를 표본국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경제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사용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석유와 광업 등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반영하여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다 (Nature). 아프리카의 방대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기술 확산의 인프라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Mobile). 무역의 정도(수출과 수입의 합)를 통해 측정된 개방성(Trade)과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하는 핵심 결정요소들을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투자대상국의 기술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특허 취득건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Technology).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자 인한 자유도(Liberty)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Political)의 현지국의 경제 성장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민주성과 정치적 권리 Freedom House의 민주화지수를 활용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4.2 Equations

$$\ln GDP_{i,t} = \beta_0 + \beta_1 \ln FDI_{i,t} + \beta_2 \ln ODA_{i,t} + \beta_3 \ln NAT_{i,t} + \beta_4 \ln TRA_{i,t} + \beta_5 \ln TEC_{i,t} + \beta_6 \ln MOB_{i,t} + \beta_7 \ln LIB_{i,t} + \beta_8 \ln FDI_{i,t} * LIB_{i,t} + \beta_9 \ln POL_{i,t} + \beta_{10} FDI_{i,t} * POL_{i,t} + \epsilon_{i,t}$$

$GDP_{i,t}$ = t년도 i국의 1인당 GDP, $FDI_{i,t}$ = t년i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정도, $ODA_{i,t}$ = t년도 i국이 받은 공적개발원조량, $NAT_{i,t}$ = t년도 i국의 GDP 대비 자원비중, $TRA_{i,t}$ = t년도 i국의 무역량, $TEC_{i,t}$ = t년도 i국의 과학논문 등재 수, $MOB_{i,t}$ = t년도 I국의 휴대폰 사용량, $LIB_{i,t}$ = t년도 i국의 민주화지수, $POL_{i,t}$ = t년도 i국의 정치참여지수

[표 1] 서술통계량과 상관계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변수	평균	표준편차	GDP	FDI	TEC	LIB	POL	ODA	NAT	TRA	MOB
상관계수											
GDP	10.12	0.03	1								
FDI	1.08E+	1.18E+	0.73**	1							
TEC	2.09	0.04	0.79**	0.55**	1						
LIB	3.74	0.08	-0.20**	-0.13*	-0.44**	1					
POL	4.01	0.11	-0.30**	-0.16**	-0.44**	0.86**	1				
ODA	8.79	0.03	0.52**	0.31**	0.35**	-0.02	-0.15*	1			
NAT	0.95	0.02	0.15**	0.25**	-0.11*	0.45**	0.39**	0.34**	1		
TRA	73.73	1.88	-0.34**	-0.03	-0.39**	0.06	0.15*	-0.60**	0.07	1	
MOB	6.45	0.04	0.84**	0.60**	0.67**	-0.18**	-0.24**	0.64**	0.21**	-0.32**	1

+ p<0.1, * p<0.05, ** p<0.01

5. Empirical Results

모형1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표본국가들의 자원의 비중과 이동전화의 사용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경제 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열에 있는 모형2는 모형 1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에 FDI라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회귀식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4를 통해 모형 3에서는 유의했던 자유도(LIB)의 경제성장효과가, FDI를 통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5와 6을 통해 정치참여도(POL)가 FDI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유도(LIB)와 정치참여(POL)를 모두를 고려한 모형 7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함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도(LIB)와 정치참여(POL)가 0.105 와 -0.072라는 반대되는 결과 값과 0이라는 높은 유의도를 갖게 되었다. 즉 정치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저하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FDI를 통하였을 때는, 두 변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은 유지되었지만 0.047과 0.015로 유의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유정도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지만 FDI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줄어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또 정치참여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FDI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며 자본동맹을 토대로 하는 FDI와 현지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Table2] Result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ODA	-0.019	-0.033	-0.014	-0.013	-0.042	-0.034	-0.028
	0.713	0.458	0.756	0.769	0.375	0.468	0.541
NAT	0.127**	0.043	-0.001	0.000	0.056	0.058	0.009
	0.005	0.281	0.98	0.993	0.211	0.195	0.845
TRA	0.000	-0.002**	-0.001*	-0.001*	-0.002**	-0.002*	-0.001+
	0.648	0.009	0.041	0.044	0.007	0.01	0.071
MOB	0.387**	0.322**	0.316**	0.317**	0.324**	0.324**	0.31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TEC	0.315**	0.216**	0.241**	0.241**	0.210**	0.208**	0.23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DI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IB			0.028*	0.027*			0.105**
			0.027	0.03			0.000
FDIXLIB				-0.005			0.068*
				0.734			0.047
POL					-0.006	-0.008	-0.072**
					0.518	0.424	0.000
FDIXPOL						-0.02	-0.088*
						0.229	0.015
Constant	7.036**	7.882**	7.610**	7.600**	7.974**	7.912**	7.73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l	16.48444	50.3257	52.87127	52.93156	50.54197	51.29581	65.07142
N	239	239	239	239	239	239	239
aic	-20.9689	-88.6514	-91.7425	-89.8631	-87.0839	-86.5916	-110.143
bic	-0.1101	-67.7926	-67.4073	-62.0514	-62.7487	-58.7799	-75.3782

+ p<0.1, * p<0.05, ** p<0.01

6. 결론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효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민주화로 대표되는 두 변수인 정치참여도와 자유정도와 같은 변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자유정도는 FDI를 했을

때와 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했다. 정치참여정도는 반대로 FDI 유무와 관련한 모든 상황에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역설적인 점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정치참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선거제도와 그를 정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FDI를 하였을 때, 자유정도와 정치참여정도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자유정도의 정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정도의 부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이는 투자의 불안정성을 두려워하며 절차적 신뢰성을 중시하는 FDI와 현지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국가별 총량자료를 사용하여 투자대상국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또한 비록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화지수가 절차적 요소를 강조하는 다른 민주주의 지표와 달리 실질적인 지표라는 평가가 있어도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자유의 정도와 정치참여 정도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Reference

- [1] Africa's middle class Few and far between, *The Economist*, (2015, October 22) <https://www.economist.com/news/middle-east-and-africa/21676774-africans-are-mainly-rich-or-poor-not-middle-class-should-worry>
- [2] Balasubramanyam, V. N., M. Slisu and David Sapsfo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in EP and IS Countries, *Economic Journal*, (1996), Vol.106, pp.92-105.
- [3] Bigman, David, Poverty, Hunger, Democracy in Africa: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Democracy in Cementing Multiethnic Societies. Palgrave: London (2011).
- [4] Blomstrom, M. and A. Kokk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pillover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998), Vol.12, pp.247-77.
- [5] Borensztein, Eduardo, Jose De Gregorio and Jong-Wha Lee,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8), Vol.45, pp.115-135.
- [6] Eicher, Theo S., Lindy Helfman, and Alex Lenkoski, Robust FDI Determinants: Bayesian Model Averaging in The Presence of Selection Bias, Center for Statistics and the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Washington Working Paper No.110 (2011).
- [7] Findlay, Ronald, Relative Backwardness, Direct Foreign Investment,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A Simple Dynamic Mode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8), Vol.92, pp.1-16.
- [8] Freedom in the world 2017, (2018, February 2) <https://freedomhouse.org/report/fiw-2017-table-country-scores>
- [9] Jadhav, P.,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BRICS Economies: Analysis of 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12), Vol.37, pp.5-14.
- [10] Lall, S, Vertical Interfirm Linkages in LDCs: An Empirical Stud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 Statistics, (1980), Vol.42, pp.203-226.
- [11] Lipsey, Robert E., Home and Host Country Effects of FDI”,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9293 (2002).
- [12] Mao, Hong and Luo Shou Chen, Quantitative and Dynamic Analysis of the OLI Variables Determining FDI in China, (2001), RURDS Vol.13, No.2, pp.163-172.
- [13] Moura, Rui and Rosa Forte,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Host Country Economic Growth -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EP Working Papers No.390 (2010).
- [14] Moyo, D.,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Alma (2012)
- [15] Munck, Gerardo and Jay Verkuilen.,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Democracy: Evaluating Alternative Indi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 (2002), No.1, pp.5-34.
- [16] Olson, M., Autocracy, Democracy and Prosperity, in R. Zeckhauser, ed., *Strategy and Choice*,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pp.131-57, (1991).
- [17] Ram, R. and Zhang, K.,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ross-Country Data for the 1990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2), Vol.51, No.1, pp.205-215.
- [18] Rao, V.,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19, (1984), pp.67-81.
- [19] Rao, V.,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19, (1984), pp.67-81.
- [20] Selma and Kurtishi-Kastrati,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Host Country’s Economy, *Europ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2013), Vol.5, No.1, pp.26-38.
- [21] Sirowy, L. and A. Inkeles, the Effects of Democracy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a Review,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5, (1990), pp.126-57.
- [22] Southall, Roger, *Democracy in Africa: Moving Beyond a Difficult Legacy*. Cape Town: HSRC (2003).
- [23] Spears, Ian S., Africa’s Informal Power-Sharing and the Prospects for Peace. *Civil Wars*, (2013), Vol.15, No.1, pp.37-53.
- [24] UNCTA, *Regional Trads: Africa,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 in the SDGs: An Action Plan*,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4).
- [25] UNCTAD, *Regional Trends: Africa,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3).
- [26] Walter O. Oyugi, “Coalition politics and coalition governments in Africa”,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006), vol.24, No.1, pp.53-79